

금융사 경영전략 워크숍

‘일류신한’의 키워드는 R 지속가능한 ESG경영 공유

(Resilience·회복탄력성)

(환경·사회·지배구조)

신한금융 고객중심 원신한 체계강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일류(一流)신한’ 도전을 위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기흥 신한은행연수원에서 조 회장을 비롯한 전 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 및 임원, 본부장 등 총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20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첫 영업일에 신한 리더들과 함께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경영포럼을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경영포럼이 일류신한을 향한 원대한 여정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무엇이 일류를 만드는가?’라는 키워드로 진행됐다. 먼저 조 회장이 ‘일류를 말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일류 기업의 조건’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강연과 올해 경영환경 및 그룹의 전략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예술·과학·비즈니스·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여러 분야의 테마 강연과 토의를 통해 일류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는 시간과 2020년 그룹의 7대 전략 과제에 대해 조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회장은 올해 두 가지 큰 도전으로 ‘2020 스마트(SMART)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와 ‘일류신한’을 제시했다.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그룹의 전략 방향성은 ‘F.R.E.S.H 2020’이라고 정의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기초체력(Fundamental) ▲축적된 성공의 힘으로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는 회복 탄력성(Resilienc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신한은행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신한경영포럼’에서 ‘일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e) ▲핀테크, 생활 플랫폼을 아우르는 신한이 주도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현(Eco-system)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상생하는 책임있는 기업시민(Sustainability)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융·복합형 인재 확보(Human-talent) 등을 말한다.

조 회장은 5개의 키워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R(회복탄력성)을 꼽았다. 그는 “조직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은 역경 속에서 핵심 역량을 재창조해 재도약을 이뤄내는 힘”이라며 “전략적 복원력을 높인 기업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역량을 지닌 기업으로 재탄생한다”고 강조했다.

일류신한으로 도약하기 위한 7가지 전략과제로는 ▲고객중심 원신한(One Shinhan) 체계 강화 ▲시장선도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고도화된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혁신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치창출 지속가능·혁신금융 본격화 ▲변화대응 리스크관리 역량 차별화 ▲일류지향 신한가치 확립 등을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KB금융 “모든 경영진 같은 곳 바라봐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했다.

KB금융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KB증권 용인연수원에서 윤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ESG 기반의 KB금융 전략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최고경영자(CEO)와 12개 계열사 대표이사 모두가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이 될 것을 다짐했다.

‘2020년 금융업 전망’ 및 ‘시장에서 바라보는 KB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의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도 지난 경영 성과를 되돌아보며 2020년 경영전략에 대해 인사이트(통찰력)를 얻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디지털·IT, 리더십 등에 대해 강연과 함께 각 주제별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포럼도 진행됐다. 2020년 그룹 경영전략방향의 실행 방안 도출을 위한 사업 부문별 심층 토의시간도 진행됐다.

▲디지털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글로벌 ▲자본시장 ▲개인고객 ▲중소기업(SME) ▲보험 등 총 8개 사업 부문별 임도의를 통해 각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또 전체 경영진이 각 실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지난 3일 경기도 KB증권 용인연수원에서 ‘KB금융그룹 ESG 이행원칙’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3일 경기도 KB증권 용인연수원에서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KB금융

행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치열한 피드백 과정으로 이어졌다.

윤 회장은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신속히 체계화하고, 더욱 확산하자”며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금융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0년 경영전략방향인 ‘L.E.A.D 2020(Level up the core, Expansion, Active&creative KB, Digital innovation)’을 업무 추진시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경영진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도약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KB금융 관계자는 “중점 추진 사업별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경영진이 다함께 논의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택연금 55세부터 #구직청년 저금리대출

‘대전하나시티즌’ 창단... 글로벌 구단 꿈꾼다

금감원 Q&A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Q. 매년 많은 금융제도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 챙겨보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네요.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운데 저 같은 평범한 금융소비자가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 위주로 콕콕 짚어주세요.

A. 먼저 든든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입니다.

일단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집니다. 올해 1분기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작년까지 60세 이상만 가능)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납니다. 작년까지는 연간 연금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한도가 최대 6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50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 자영업자, 청년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초기 2년간은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



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일정 심사를 거쳐 재창업자금과 관련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올해 1월 중 최저 3.6%, 12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분기부터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소송 변호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김희주 기자 hj89@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대전, 축구 명성 되찾길” 황선홍 신임 감독 소개, 구단기 전달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시민들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프로축구 구단 ‘대전하나시티즌’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창단식을 개최했다.

대전하나시티즌은 국내 리그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대전 시민과 선수들, 관객이 하나돼 모두의 기쁨을 통해 함께 성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전시에 위치한 충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창단식에는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주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 CEO, 허태정 대전시장,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허정무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및 프로축구연맹 관계자와 구단 서포터즈, 대전 시민 등 약 2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창단사를 통해 “대전하나시티즌 창단은 ‘함께 성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대전 충무실내체육관에서 대전 시민들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프로축구 구단 ‘대전하나시티즌’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단식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의 구단주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가운데)이 구단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과 뜻을 같이 한다”며 “지난 1997년 대전시티즌 창단 때부터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응원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롭게 창단하는 대전하나시티즌을 통해 대전광역시와 ‘축구 특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나금융그룹과 150만 대전 시민 모두가 축구로 하나가 되어 함께 환호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이를 통해 대전하나시티즌을 국내 무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구단으로 성장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수단 기자간담회에 이어 가

진 공식행사에서는 구단 양수도 계약 조인식과 대전하나시티즌 창단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구단 엠블럼과 유니폼을 공개하고, 황선홍 신임 감독 및 선수단 소개와 구단기 전달식을 가졌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대전시로부터 ‘대전시티즌 투자 유치 제안서’를 받은 이후 11월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 간 ‘구단 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발기인대회를 거쳐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을 설립했다. 초대 이사장으로 허정무 전 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선임하고, 구단 인수 및 창단 준비를 착실히 진행한 결과 이날 공식적인 창단식을 가졌다.

/홍민영 기자 hong93@